

# 최악 고용한파...취준생 절반 "취업만 되면 어디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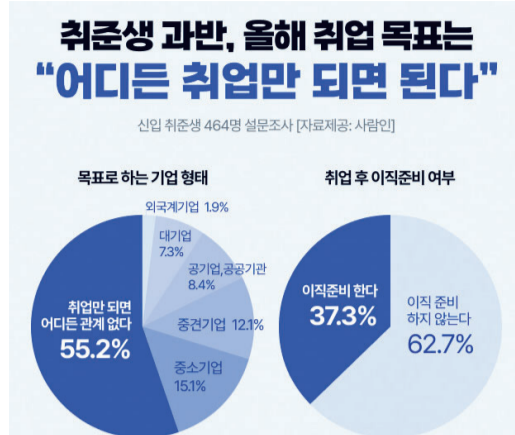
### 기업 고를때 가장 큰 영향 연봉·워라밸 보장·복지후생 순 꼽아 37% "입사후 이직 준비" 36% "올해 취업에 성공할 자신 없어"

신입 취업준비생(취준생) 절반 이상이 다소 목표에 못 미치더라도 합격만 한다면 어디든 다니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에 일단 취직한 뒤 경력과 능력을 쌓아 재취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 장기화 및 정치적 리스크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구직 시장이 위축되면서 갈수록 취업률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신입 취준생 464명을 대상으로 '올해 취업 목표'를 조사한 결과 취직을 희망하는 기업 형태에 대해 55.2%가 '취업만 되면 어디든 관계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 '중소기업·스타트업(15.1%)', '중견기업(12.1%)', '공기업·공공기관(8.4%)', '대기업(7.3%)', '외국계기업(1.9%)'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업 형태와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빨리 취업해야 해서(55.1%)', '길어지는 구직활동에 지쳐서(39.1%)', '남들보다 스펙 등 강점이 부족해서(31.3%)', '경기가 좋지 않아 채용이 줄어들어서(28.5%)', '목표 기업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12.9%)' 등이 꼽혔다.



특히 목표기업을 특정한 취준생 208명은 기업을 고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봉(24%)'을 꼽았다. 이어 '워라밸 보장 여부(14.4%)', '복지후생(13.9%)', '개인 커리어발전 가능성(12%)', '정년 보장 등 안정성(10.6%)', '조직문화·분위기(9.6%)', '근무지 위치(6.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는 구직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취업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취준생이 올해 취업 후 희망하는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평균 3394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 구간별로는 2500만~3000만원 미만(36.2%), 3000만~3500만원 미만(30.8%), 3500만~4000만원 미만(17.2%), 4000만~4500만원 미만(6.9%), 4500만~5000만원 미만(4.1%)로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37.3%는 목표한 기업에 입사 하더라도 이직 준비를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1.8년간 근무한 뒤 이직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입사 후 이직 시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1년~1년 6개월 미만'이 19.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36.9%는 '올해 취업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채용 과정에서 어필할 만한 커리어 스펙이 부족해서(61.4%)',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 같아서(42.1%)', '실제 입사 지원할 만한 채용이 적을 것 같아서(41.5%)', '경쟁자들의 실력이 상당히 평균화되고 있어서(35.7%)', '국제 정세 등 불확실성이 커져서(16.4%)' 등을 꼽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은행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로 외국인 영업 강화

### AI 언어 전문 기업 '플리토' 협업

광주은행이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최근 인공지능(AI)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인 '플리토'와 협업해 영업점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는 외국인 고객이 각 지점을 방문할 시,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부착된 마이크를 통해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직원과 고객의 국가 언어를 글자로 보여주는 쌍방향 소통 서비스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영어·일본어·중국어 뿐만 아니라, 베트남어·태국어·아랍어 등 38개 국가의 언어에 대해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그 동안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었던 외국인 고객들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특화 전용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금융센터 ▲외국인 이동버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남도장터 설 명절 기획전 매출 100억원 달성

### 지난해 설 대비 20% 이상 늘어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설 명절 기획전(지난해 12월 18일~올해 1월 30일)에서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남도장터에 입점한 205개 업체의 862개 제품이 판매되면서 지난해 설 대비 20% 이상 매출이 늘었다는 게 남도장터측 설명이다. 특히 자사몰 판매가 37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라이브커머스를 비롯, 시·군·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설 명절 이벤트 등과 연계하여 할인 혜택을 대폭 제공한 게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남도장터측 분석이다.

남도장터는 또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공모지원금 1억 8000만원을 활용, '2025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을 진행해 10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김경호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남도 장터가 입점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장터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 신규 운영 시스템을 구축,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주문 결제 편의성, 배송기간 단축,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및 시·군 중복투자 해소 등 쇼핑몰 이용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남도장터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신보-화순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3일 화순군과 '2025년 소상공인심리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전남신보에 1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중·저신용자(신용등급 5등급 이하)를 우대하는 '화순군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총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남신보는 화순군민을 위해 보증비용을 상향(85%→100%)해 금융회사 적용 금리를 낮추(0.5%-1%p)고 보증수수료(평균 1.1%→ 고정 0.8%)도 인하하는 한편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화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자금을 연계하면 시중은행 이자율 평균 1~2%(최대 3년, 3%p 지원) 수준의 저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이번 특별출연은 화순군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화순군 소상공인이 이용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신보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보다 1000억원 증액해 모두 4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건설경기 악화

### 소비심리 위축 내수부진 지속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 건설경기 등 지역 경기 지표들이 전년 동월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2·3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연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민들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지역 건설사의 부진 역시 지속되면서 광주·전남의 건설수주액이 모두 45%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7로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했다. 업태별로 백화점 판매가 6.4%, 대형마트 판매는 12.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소매점 판매 감소는 신발·가방(-18.3%), 화장품(-13.7%), 음식료품(-10.4%), 가전제품(-8.9%), 의복(-7.8%) 등 다양한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건설경기 역시 부진이 지속됐다. 지난해 12월 광주시 건설수주액은 3748억원으로 1년전보다 46.7% 감소했다.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이 전년보다 958.8% 증가했지만, 수주액 규모가 큰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감소로 인해 87.6% 줄었다.

전남 역시 소비는 모든 상품군이 1년 전보다 감소했고,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건설 수주액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기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4.2로 전년 동월보다 17.2% 줄었다. 지역민들의 소비심리 침체로 상품군별로 1년전보다 판매액지수가 증가한 항목은 단 하나도 없었고, 기타상품(-27.0%), 신발·가방(-24.5%), 화장품(-17.4%) 등 모든 항목이 감소했다.

전남 건설 수주액은 618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6% 줄었다. 부문별로 공공부문이 38.2% 감소했고, 민간부문은 부동산, 화학·석유 등의 부진으로 50.4%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광주신세계 생활매장 리뉴얼 오픈 기념 사은품 증정 행사

광주신세계가 생활공간을 본인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꾸미는 트렌드 및 고객 수요에 맞춰 취본관 8층 생활 매장을 리뉴얼 오픈하고,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진)

우선 지난해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던 리빙 브랜드 편집숍 '무브먼트 랩'이 신규 입점한다. 무브먼트 랩에서는 '잭슨 카멜레온', '오블리크 테이블', '무니토' 등 다양한 가구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무브먼트 랩은 신규 오픈을 기념해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블리크 테이블'의 나노 트레이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위스 프리미엄 오피스 가구 브랜드 'USM'도 리뉴얼 오픈했다.

USM의 대표 제품으로는 '할러 모듈 선반'을 활용한 모듈식 시스템 선반이 있다. USM은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500만원 이상 구매 시 분리형 선반을, 10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USM 5단 서랍을 증정한다.

더불어 생활 매장에는 '허먼밀러', '토레', '봄소와', '브리나인' 등 가구 브랜드를 리뉴얼 오픈하고, 'VBC 까사', '르쿠르제' 등 주방 용품 브랜드도 매장을 새롭게 꾸며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각자의 취향으로 공간을 꾸미고 싶은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브랜드를 입점하고 리뉴얼 오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편, 광주신세계는 '무브먼트 랩'이 신규 오픈을 기념해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블리크 테이블'의 나노 트레이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롯데백화점 광주점 "보냉가방 반납하고 엘포인트 받으세요"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 보냉가방을 반납받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3일까지 10층 사은행사장에서 설 명절에 받은 선물 보냉가방을 반납하면, 가방 1개당 엘포인트 3000 점을 적립해주는 '보냉 가방 회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반납을 통해 회수된 보냉가방은 롯데백화점이 업사이클링해 새로운 굿즈로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전남 TP, 지식재산·R&D 지원 사업 6일 동부권·7일 서부권 설명회 개최

전남테크노파크가 6일 전남테크노파크(동부권), 7일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서부권)에서 '2025년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재산 및 R&D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지식재산 및 R&D 지원' 사업 전반을 기업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식재산센터(지식재산)와 과학기술진흥센터(R&D) 사업이 주대상이다.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IP스타기업, IP긴급지원, IP나래프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소상공인 IP창출지원, 곡성군·진도군 시군구연구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또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지역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전남 중소기업 R&D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 소재부품부품 산업 연구개발 대행, 원스톱 지원사업, 기업부설

연구소 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올해도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과 R&D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3.95 (-63.42)
↓ 코스닥	703.80 (-24.49)
↓ 금리(국고채 3년)	2.572 (-0.001)
↑ 환율(USD)	1464.95 (+12.25)
<small>(오후 5시 55분 기준)</small>	